

한라시론



윤 순 희 (주)제주생태관광 대표

어릴 적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몰라 고민할 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할머니의 '착한' 지론은 사회적경제의 논리이다. 시장경제주의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강요한다. 자본주의에서 착한 사람이란 무능한 사람,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 주류경제학의 근본 전제였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은 그 타당성을 잃고 있으며, 인간을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존재, 즉 상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이타성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경쟁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착한 뒤끝은 있다”

한 협력만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 관광객은 감소하고 숙박업체는 난립하면서 제주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도내에서 폐업 신고한 숙박시설은 355곳이다. 또한 신규 숙박업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경영난은 지속될 예정이다. 여행을 비롯한 다른 관광사업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주의 관광산업 문제점을 이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보면 어떨까. 사회적관광은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제주에는 생태관광, 공정관광, 농어촌마을관광 등의 사회적관광업체들이 있다. 참여하는 마을기업, 업체가 많아지면서 상품

도 다양해지고 소비자들도 확산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관광 성공사례로 프랑스의 농촌관광 지트를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농촌의 건축물이나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운동이 결합되어 Green-Tourism이 탄생하였다. 관광체험형 숙박 네트워크 '지트(Gite) 드 프랑스'는 연 매출 12억 유로(1조 8000억 원), 연 숙박일수 3500만일을 자랑한다. 또한 매년 지트 프랑스 가입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프랑스 국내 관광객 5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한다.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지트의 성공원인은 숙박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로 부터 신뢰를 형성하고, 농촌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주고, 그 지역의 사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을 하는 데 있다. 지트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냄새이다. 투박한 전통의 음식에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

고 농촌이 있어 도시의 삶이 지속되기에 그곳의 삶을 존중한다. 이렇게 지트가 성공하면서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농촌다운 경관보전을 위하여 민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화를 해결하고 협업체를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애항심도 향상되어 그들의 삶도 윤택해졌다.

사회적관광은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의식이 성장해야 한다.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는 선한 의지가 상호성에 의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일으키고 공공의 가치를 확산시킨다. 사회적경제는 300년 역사의 시장경제보다 앞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이었다. 오래된 미래인 사회적관광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타심을 인간 행동의 원리로 삼고, 이기심을 제어하는 사회적 규범을 통해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원리를 제시한다.

사설

삶의 질과 직결된 소음공해 줄여야 한다

소음공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단적으로 증간소음의 경우 갈등을 빚다가 폭력과 살인 등 극단적인 일까지 빚어지는 이유일 겁니다. 증간소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지역 도심이 밤낮으로 환경소음을 피해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18일까지 도내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측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음 측정 장소는 제주시의 경우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일도2동, 중앙로타리 일대 일반지역 12곳과 도로변지역 8곳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중앙초등학교와 동흥동, 농협중앙회 남부지점 일대 일반지역 9곳과 도로변지역 6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환경소음 측정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환경소음이 기준치(4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습니다. 또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 평균 소음이 훨씬 심했습니다. 야간 58%가 1-8데시벨(dB) 가량 환경소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서귀포시는 주간 11%, 야간 44%가 2-7dB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도로변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야간(75%)에만 기준치(1~7dB)보다 시끄러웠습니다. 반면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기준치(1~10dB)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역별 평균을 보면 한마음병원 인근 일반지역은 낮 54dB, 밤 46dB로 환경기준(낮 50dB, 밤 40dB)을 초과했습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낮 64dB, 밤 57dB로 환경기준(낮 65dB, 밤 55dB)과 비교해 밤시간대 환경소음이 더 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환경소음은 의외로 많습니다. 2018년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 484건 중 87.4%가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그 유형도 공사장소음·도로소음·항공기소음 등 다양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와 생활소음이 꼽혔습니다. 물론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음공해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음공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25%, 야간 58%가 1-8데시벨(dB) 가량 환경소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편집국 25시

그때 그 도지사



송 은 범 행정사회부 차장 seb1119@ihalla.com

제주4·3이 발생한 지 한 달 후인 1948년 5월 5일 제주중학교에서 단 미군정장관과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맨스필드 제주군정장관, 유해진 제주지사,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경찰감찰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5·5 최고수뇌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전 이미 '강경 진압'을 염두에 둔 단 미군정장관은 '화평진술'을 주장했던 김익렬 9연대장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박진경 중령을 임명해 제주4·3에 대한 강경 진압을 추진토록 했다.

이후 제주에서는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양민학살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2008년 9월 17

일, 제주시 탐동의 한 식당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린다. 유력상 제주도 환경부지사와 김형수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차장등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 대책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 관계자는 "결함들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해군이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고, 국정원은 "제주지검에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신구속 등이 있어야 반대수위가 낮아진다"며 동조했다.

이날 회의로 '강경 진압'이 확정되면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무려 697명에 달한다.

진실이 밝혀진 2019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정작 이에 동조한 제주도는 사과하는 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도민의 대표인 원외홍 지사가 나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제주도지사가 언제 또 1948년, 2008년 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할지 모르는 일이다.

뉴스-in

교육당국 의지 부족 문제 도마위

카지노게임백서 발간 '구설'

○...제주도가 19일 카지노게임백제 배포할 예정인 카지노 게임백서를 놓고 설왕설래.

제주도의 백서발간은 백서에 기재된 게임내용 이외의 게임을 업체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 대처한다는 게 취지.

그러나 제주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총 16가지의 테이블게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내용으로 제작되면서 '과잉 친절'이라는 비판과 시중 유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존. 조상윤기자

“특성화고 활성화 우수방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9일 열린 제373

회 의회 1차 정례회 예정위 4차 회의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혁신적인 방안 마련 미흡을 지적.

강 의원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IB교육을 강조하는 추진력으로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 오은지기자

자동차세고지서로 시민 혼란

○...제주시가 일부 등지역에 자동차세 고지서 2개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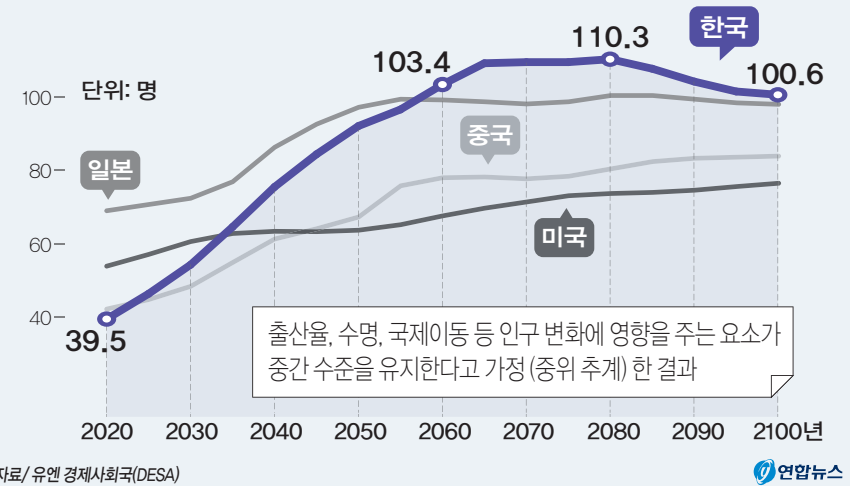
제주시는 이달 울레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23만2725건)를 발송하면서 연동·노형동 등 일부 지역에 일련번호가 같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2개씩 발송.

제주시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일부 고지서가 중복 출력돼 발송이 된 것 같다”며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차량별로 1건만 납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그래픽 뉴스

한국 인구부양부담 전망

총부양비: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의 합을 15~64세 인구에 나눈 뒤 100을 곱한 값.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를 나타냄



부 고 오태영(현대중공업 부장)·태현 ((주)아트피큐 대표이사, (사)제주 ICT기업협회 회장)·태림 (LG전자 인사팀책임) 아버지 군위공민 민홍 (前 제주대학교 실습선 선장·향년 72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7일 08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0일(목) ▶발인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부 인 현 영 자 아 들 오태영 며느리 박지원 태현 문정미 태림 윤정은 ※ 연락처: 오태영 010-2690-0360 오태현 010-7742-2043 오태림 010-7544-2043 현영자 010-3949-2043 박지원 010-4162-6152 문정미 010-5593-2043 윤정은 010-3943-2165

부 고 김윤수 아버지 김해김공 성률 (향년 81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8일 16시 1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0일(목) ▶발인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아 들 김윤수 며느리 이현숙 딸 김미숙 사 위 김효중 미정 박상원 미희 문창배 ※ 연락처: 김윤수 010-5755-2611

부 고 고경수(제주태고원 원장) 어머니 경주김씨 태열 (향년 98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8일 18시 3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0일(목) ▶발인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구좌읍 공동묘지 아 들 고임수 며느리 장정희 인수 박정행 탄혜스님 경수 김명수 택수 김선아 딸 고신자 사 위 강정봉 학금 이춘일(敬) 영미숙 오창수 영미숙 문원호 손 자 고경진 손 녀 김성훈 경신 고민지 동명명 경희희 동현상 승희 준섭 ※ 연락처: 고경수 010-2689-7174 고택수 010-9840-3592

부 고 장시창(캐나다거주, 우성CANADA 대표)·시흠(우성농장 대표) 어머니 광산김씨 순정 (향년 93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8일 23시 19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1일(금) ▶발인일시: 2019년 6월 22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차: 호근동 학수바위 뒤 선영 아 들 장시창 며느리 한경옥 시흠 김애숙 시은 홍순실 시성 한정선 영우 송경희 딸 장성자 사 위 홍상준 은하 ※ 연락처: 장시흠 010-2936-4233 장시은 010-5109-4233 장시성 010-5235-1149 장영우 010-5031-5996 장은하 010-8662-5996

부 고 강경완(유진산업안전(주) 대표) 어머니 풍천임씨 춘자 (향년 73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9일 11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1일(금) ▶발인일시: 2019년 6월 22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 (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아 들 강경완 며느리 임문아 강경목 강경민 사 위 김희철 강정아 서승재 ※ 연락처: 강경완 010-6212-1561 강경목 010-8662-0831 강경민 010-2658-0888 중앙병원장례식장 721-1000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g 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93-6987, 010-576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신]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064-796-6947 핸드폰: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사로106-7)